

#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 세션 9, 지정학적 분야, 2부

© 220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지정학적 경기장, 2부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612년에 멸망한 후,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본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전 아시리아 영토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일련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쪽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다시 이집트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와 달리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불과 수십 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중요한 바빌로니아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므로닥발라단입니다. 므로닥발라단은 8세기에 끊임없이 앗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선동했던 바벨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냈고, 히스기야는 다시금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무기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므로닥발라단은 사달 -아랍 지역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나보폴라살(Nabopolassar)은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켰고 그 후 아시리아 영토로 진격하여 고대 수도인 아셀(Asher)을 먼저 정복한 다음 612년에 니네베(Nineveh)를 정복했습니다.

605년에 왕위에 올랐고,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영토를 물리치고 레반트와 이집트를 장악한 사람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유명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후, 유다로부터 일련의 추방이 일어났고, 앗시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본 기술이 바빌로니아인들에게도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패하고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인구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간 후 바벨론이 바벨론으로 유배된 후 일련의 약한 통치자들이 느부갓네살을 계승했고 이들 중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약한 왕과 그의 아들이 사실상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인 벨사살은 다니엘을 방탕한 잔치에 초대하여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벽에 적힌 글을 읽게 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그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바빌론이 니므롯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처음 언급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의 초기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바빌론은 엄청난 아름다움과 건축, 문명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유명한 이슈타르 문입니다. 예술가의 재구성.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베를린 박물관에서 부분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예술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듯이 의식의 문입니다. 다시, 벽에는 사자와 바빌로니아 종교의 다양한 신화 속 생물이 새겨진 윤이 나는 벽돌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다시 아름답게 재구성되어 전시되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가졌던 질문 중 하나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계곡이 평탄하지 않고 산간 지형에 익숙한 바빌론 왕이 아내를 위해 지었다는 전설적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 바빌론을 발굴한 독일의 고고학자 로버트 콜데바이(Robert Koldewey)가 한 곳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DJ Wiseman은 1984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옥외 공사를 제안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의 아시리아학자인 스테파니 다울리(Stephanie Dowle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중정원을 언급하는 역사가들은 모두 당시의 고전적인 인물들임을 시사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그녀는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원은 바빌론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나 아슈르바니팔이 대신 대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개된 질문이며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니느웨의 공중정원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Dowley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도 원래 그랬을 것이며 바빌론 자체에는 실제 공중 정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아르키메데스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실제로 물을 위쪽으로 흐르게 하고, 물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다음 정원에 물을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정원이 분명히 관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의 발명은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리아인이나 바빌로니아인이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발명되어 문헌에서 다시 아시리아인이나 바빌로니아인으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바빌론 도시를 여행하는 나보니두스와 그의 여왕을 예술가가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니네베처럼, 놀랍게도 이 고대 도시들의 웅장함과 광경은 불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은 539년에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아시리아인들에게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혹은 죄송하지만,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인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범위는 인더스 강 유역, 이집트, 소아시아, 심지어 유럽의 일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지협이나 보스포러스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발칸 반도의 그리스 북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이었고, 이것은 기원전 333년까지 지속되었으니, 약 200년 정도였습니다. 다시 바빌론을 정복한 키루스 대왕은 이듬해 모든 포로와 추방된 민족에게 자신의 국가나 국가 또는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 치하의 첫 번째 그룹과 그 뒤를 이은 파동들인 유대인 그룹들이 유다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소수 즉 유다로 돌아온 충실한 남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었고, 그 후 당연히 쉽게 페르시아 문화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냈고,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성지에서 조상들이 살던 삶을 사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고국에서 다시 삶을 재건하기 시작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련의 속주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설립되었습니다.

유다 예후 지방은 다시 고대 왕국의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총독들의 감독을 받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후기 페르시아 왕들은 그리스를 침공하여 제국을 확장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 중 한 명인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둘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페르시아와 그 통치자들은 점점 부패해졌고, 제국은 사실상 중심에서 붕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의 그라니코스 강에서, 그다음에는 이수스와 아르벨라에서, 점점 더 큰 페르시아 군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패배시킨 것은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막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비, 눈, 진눈깨비 같은 말을 우리에게 주었던 한때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우편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지입니다.

원래는 기둥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다른 나무들인 나무 기둥들로 보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부구조는 목재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도시를 파괴함으로써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하지만 여기 페르시아 귀족들이 궁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묘사된 기념비적인 계단이 있습니다. 바빌론을 함락시킨 후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키루스 대왕과 파사르가다에에 있는 그의 무덤을 묘사한 예술가.

Basargadeh는 David Stronach가 발굴하고 작성한 광범위한 궁전 및 정원 시설이었습니다. 현대 이란의 놀라운 사이트. 다시 한번, 페르시아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 드립니다.

포로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키루스 원통, 즉 키루스 칙령의 사본 중 하나입니다. 보조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와 수사의 그림이 더 있는데, 또 에스더서의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지방에서는 주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유대인 동전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주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은화는 지름이 16페니짜리 못 머리 정도의 크기였고, 극히 작았고, 지름이 10센트짜리 순은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예후드' 라고 적혀 있고, 여기 반대편에는 곡식 잔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세켈 동전은 예후드 동전의 이러한 변형 중 하나를 모방한 것입니다.

비문에 따르면 이것은 여리고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후드와 다른 변종을 언급하는 저장 항아리의 페르시아 시대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명의 학자가 이를 모아 출판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러한 저장 항아리를 통해 규제되고 사용되는 세금이나 농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징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세폴리스를 최종적으로 파괴한 것을 한 예술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9 지정학적 아레나 2부입니다. 감사합니다.